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과 중국 상장기업의 재무비율을 중심으로 -

박 준 령*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하 CSR)을 수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재무비율과 조세 회피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비율에 따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SR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 기업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재무 비율과 관련하여 수익성이 높고, 현금 흐름이 높으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CSR의 수행 정도와 특정 재무비율이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 성향의 기업을 예측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주제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재무비율, 조세회피, ESG평가등급, RKS

* 제1저자, 한림성심대학교 세무회계과 조교수, jrpark@hsc.ac.kr

<논문 투고일> 2021.4.23

<논문 수정일> 2021.5.13

<게재 확정일> 2021.5.21

I. 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이하 CSR)은 최근까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CSR은 점차 기업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어 왔다. CSR과 관련하여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CSR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Garde-Sanchez, et al. 2018), CSR은 또한 조직의 행동을 정당화하고(Deegan, et al. 2002),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Chen and Tsai, 2007), 재무적 이익을 제공(Sial, et al. 2018)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보고되었다.

기업가치와 관련하여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가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남아 있지만, 최근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재무성과만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투자자들이 재무 실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이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임을 보고하였다(Goranova and Ryan, 2013).

CSR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학계 및 재계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은 항상 세금을 포함한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법인세 외에도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BTD)에서 수익을 조작하려는 동기도 있다(Kim and Im, 2017). 조세회피는 기업이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장·단기적으로 조세 부담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Purwantini, et al. 2017). 조세당국이 기업의 조세회피 조치가 법적 절세 활동이 아닌 탈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은 물론 원세액까지 내야 한다.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 외에도, 기업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수익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CS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드러나면 기업 명성에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제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활동성, 성장성, 생산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재무담당자 혹은 투자자가 미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almi and Martikainen, 1994). Kim and Im (2017)은 CSR에 덜 수행하는 한국 기업들은 법인세를 줄여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으며, CS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국 기업들도 직접 세비를 줄이지는 않더라도 조세회피의 유인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기업의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등이 모두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대로 주주지분율의 증가가 조세회피가 음(-)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CSR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과 중국 기업의 재무비율과 조세회피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의 경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지수를 측정변수로 사용하며, 중국기업의 경우 상하이·선천증권거래소 상장사 365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¹⁾.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SR에 참여하는 기업 특히 CS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행동을 저해하고, (2) 수익성이 높고, 현금흐름이 높으며, 매출 성장률이 높은 재무특성의 기업일수록 적극적인 조세회피 성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중국기업 모두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CS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SR 수행도와 재무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조세회피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며, III장에서는 연구 설계로 연구모형과 표본 선정과정을 기술한다. 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공헌점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의 검토

기업들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현금유출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조세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조세회피의 정의와 관련하여 Hanlon and Heitzman (2010)은 조세 회피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가 없으며, 연구자들의 이해에 따라 다른 정의를 채택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Purwantini (2017)은 조세회피를 일반적으로 기업의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관련한 감세 시도로 정의하였다. 경영자는 가급적 현금유출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탈세와 절세 양자의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시도하게 된다. Dyreng, et al. (2010)에 따르면 조세회피는 세법이 허용하는 공제와 절세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체계로 정의된다.

1) 통계청 대외무역 의존도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수출 의존도 중 중국이 지속적으로 1위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진출 기업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양국에 대한 비교 연구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통계청, 2019).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Chamberlain(1973)은 CSR을 특정 상황에서 법적인 권리의 문제로서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로 정의하고, 나아가 특정 개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만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Frederick(1983)은 공공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의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활동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의 생산과 분배는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이후 Carrol (199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대응성, 사회적 문제 등 세 가지 요소를 기업의 사회적 성과 요소로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경제, 법률, 윤리적 의무 등 사회에 대한 모든 기업의 의무를 포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Matten&Moon(2004)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경제적 책임, 공공적 책임, 사회적 대응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단일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Carrol, 199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주주, 직원,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모든 의무를 반영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Orlitzky, Siegel and Waldman, 2011).

다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로 Grant and Roman (2012)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Watson(2011)은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BTD를 사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하위 CSR 그룹의 BTD가 다른 두 그룹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낮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i (2012)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 사이에 음(-)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고하였으며, Kim and Im (2017)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가설설정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회피의 주된 동기는 이윤극대화에서 비롯하고 있다(Chen, et al. 2010). 조세는 기업의 주요 현금 유출 항목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출을 줄이면 기업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Landry, et al. 2013). Friedman (1970)에 따르면, 기업의 유일한 의무는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회피 행위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한(비용 절감), 기업은 조세회피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Huseynov and Klamm (2012)는 탈세가 기업의 지출을 줄여 주주의 가치

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Sikka and Willmott (2010)는 탈세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과 인프라 등 사회서비스 제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Sikka and Willmott (2010)에 따르면 조세회피와 CSR 두 개념이 양립할 수 없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Lanis and Richardson (2012)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호주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탈세나 절세를 억제하는 유인임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Huseynov and Klamm (2012)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S&P 500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SR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면 Hoi and Wu (2013)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620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낮을수록 조세회피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Landry and Deslandes (2013)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토론토 증권거래소의 168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조세회피와 CSR 사이의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Graham, et al. (2013)은 법인세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세회피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명성임을 보고하였다. 즉, 기업이 조세회피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하게 되면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Gulzar, et al. (2018)은 책임감 있는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일수록 법인세 회피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 식(1)과 같다.

$$BTD(TA)_{it} = \alpha_0 + \alpha_1 CSR_{it} + \alpha_2 ROA_{it} + \alpha_3 LEV_{it} + \alpha_4 SIZE_{it} + \alpha_5 PPE_{it} \\ + \alpha_6 CFO_{it} + \alpha_7 SG_{it} + \varepsilon$$

여기서,

BTD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추정과세소득)/기초총자산

AT =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

CSR = 한국기업(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²⁾)/ 중국기업(RKS지수³⁾)

ROA = 총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EV = 부채비율(기초총부채/기초총자산)

SIZE = 기업규모(ln(총자산))

PPE = 유형자산비율(감가상각대상자산/기초총자산)

CFO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SG = 매출액증가율((당기 말 매출액-전기 말 매출액)/전기 말 매출액 × 100)

ε = 잔차항

모형의 종속변수는 BTD와 AT로, 조세회피의 측정치이다. 먼저, BTD 측정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추정과세소득을 차감한 뒤 기초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연속변수로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사용한다. AT는 조세회피변수로서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로 다음의 식의 잔차로 측정한다. $BTD = \alpha TA + U + \varepsilon$

회귀분석에 이용할 기타 통제 변수로 기업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총자산수익률(ROA)을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부채비율(LEV)이 높은 기업은 조달비용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기대되어 조세회피에 보다 소극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형자산비율(PPE)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여

2)ESG 평가등급은 현재 S, A+, A, B+, B, C, D의 등급으로 평가되어 공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는 7, A+는 6, A는 5의 점수로 부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상하이 증권거래소 및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공시하는 RKS index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모형식에 포함하였다. 영업현금흐름(CFO)이 큰 기업은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할 유인이 존재하여 조세회피와 양(+)⁴의 관련성이 예측된다. 매출 증가율(SG)은 일정기간 동안 성장한 기업의 외적 성장에 대한 지표로 조세회피와 양(+)⁵의 관련성이 예측된다.

2.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2) KISVALUE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⁴⁾
- (3) 재무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본잠식기업이 아닌 기업
- (4)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이 존재하는 기업⁵⁾

위의 표본선정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인 표본선정 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선정 과정

구 분	한국	중국
CSR 대응치 공시 기업	2,000	3,650
상·하 1% 극단치거나 재무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자본잠식 기업	(412)	(1,218)
최종 표본	1,588	2,432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조세회피 평균(AT)은 각각 0.0031(0.0172), 0.0054(-0.0004)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한 관심변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평균(중위수)값은 각각 4(4), 40.1627(34.9123)으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

4) 중국기업의 경우 CSMAR에서 재무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

5) 중국기업의 경우 RKS Index 100에 등록된 기업

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재무비율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이 비하여 기업의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은 낮으며, 성장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적 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한국 (1,588)	BTD	0.0031	0.2241	-1.5178	0.0019	1.7962
	AT	0.0172	0.0345	-0.1678	0.0147	0.2821
	CSR	4	0.1212	1	4	6
	ROA	0.0673	0.0576	-0.0894	0.0548	0.7421
	LEV	0.4145	0.1801	0.0006	0.4251	0.9312
	SIZE	26.6128	1.6521	22.8922	26.5030	33.2011
	PPE	0.1878	0.1438	0.0001	0.1818	0.9822
	CFO	0.0685	0.0889	-0.7212	0.0623	0.7963
	SG	0.0538	0.3890	-0.5134	0.0921	0.9954
중국 (2,432)	BTD	0.0054	0.1338	-1.7722	0.0031	1.9298
	AT	-0.0004	0.1441	-1.7741	0.0012	1.9112
	CSR	40.1627	15.1251	13.5912	34.9123	91.5232
	ROA	0.0451	0.0411	-0.0092	0.0334	0.2918
	LEV	0.5221	0.1902	0.0152	0.3712	0.6712
	SIZE	23.3342	1.4892	18.6224	22.2241	28.4012
	PPE	0.2611	0.1962	0.0003	0.2181	0.9363
	CFO	0.0562	0.0701	-0.2771	0.0561	0.4231
	SG	0.0224	0.4122	-0.9571	0.0752	0.9912

주1) 변수 'Ⅲ-1. 연구모형' 참고

주2) *p<0.1, **p<0.05, ***p<0.01

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주요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다음의 [표 3]과 [표 4]와 같다. 먼저 [표 3]은 한국기업의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관심변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의 측정치인 BTD와 AT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는 중국기업의 상관관계분석을 나타낸 표이다. 주요 관심변수인 BTD와 AT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하여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중국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타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기업규모와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비율,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한국기업 상관관계분석

변수	BTD	AT	CSR	ROA	LEV	SIZE	PPE	CFO	SG
BTD	1								
AT	0.188*	1							
CSR	-0.192*	-0.102*	1						
ROA	0.203*	0.077*	0.321*	1					
LEV	-0.025	-0.019	0.076*	-0.212	1				
SIZE	0.036*	0.0233	0.516*	-0.122	-0.129	1			
PPE	0.162*	-0.071*	0.802	0.006	0.2088	0.1121*	1		
CFO	0.322*	0.052	0.223*	0.6021	-0.222	0.0681	0.226*	1	
SG	0.012	0.023	0.102	0.024	0.021	0.213	0.212	0.122*	1

주1) 변수 'Ⅲ-1. 연구모형' 참고

주2) *p<0.1, **p<0.05, ***p<0.01

[표 4] 중국기업 상관관계분석

변수	BTD	AT	CSR	ROA	LEV	SIZE	PPE	CFO	SG
BTD	1								
AT	0.923*	1							
CSR	-0.018	-0.002	1						
ROA	0.131*	0.103	0.010	1					
LEV	-0.021	-0.006	0.079*	-0.0119*	1				
SIZE	-0.031	-0.019	0.514*	-0.192	0.468*	1			
PPE	0.112*	0.145*	0.062*	0.021	0.231	0.421*	1		
CFO	0.031	0.092*	0.103*	0.124	-0.212	0.312	0.198*	1	
SG	0.123*	0.112*	0.001	0.012	-0.115	0.125*	0.211*	0.123	1

주1) 변수 'Ⅲ-1. 연구모형' 참고

주2) *p<0.1, **p<0.05, ***p<0.01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조세 회피의 측정치를 BTD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기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값을 보이고 있다. 즉,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이용한 조세회피의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한국과 중국기업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간에 회귀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중국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재무특성과 관련하여 ROA는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수익성의 증가가 유효법인세율의 증가를 초래하면서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적게 됨을 의미한다. PPE는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기업 모두 음(-)의 관련성을 보여 자산에 투자하는 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함을 의미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부채비율은 한국과 중국기업 모두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부채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 회귀분석

변수	한국		중국	
	BTD	AT	BTD	AT
CSR	-0.0182**	-0.0126*	-0.0013*	-0.0012
ROA	0.0124	0.0177	0.3121***	0.1298*
LEV	0.0001	0.0003	0.0142	0.0122
SIZE	0.1201*	0.1452*	-0.0071	-0.0031
CFO	0.1809*	0.1701	0.0881*	0.1024**
PPE	-0.9012	-0.0072	-0.3214	-0.0351
SG	0.0012	0.0003	0.021*	0.0211*
adj R ²	0.2122	0.2631	0.051	0.043
F값	65.91	60.24	22.78	20.12

주1) 변수 'Ⅲ-1. 연구모형' 참고

주2) *p<0.1, **p<0.05, ***p<0.01

V. 결론

1. 요약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를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0년~2019년까지 ESG 평가등급과 RKS Index에 등급이 보고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를 BTD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측정치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기업을 비교하여 향후 중국 자본시장에 진출 시 국내 기업이 중요하게 수행하여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비율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 시 투자요소 중 중요한 지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시 우선적으로 선별해야 하는 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과 재무비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조세회피전력을 수립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다양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과 관련하여 7개의 등급으로 공시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성과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즉,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리하지 못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 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2. 미래사회에 대한 시사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강제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생존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과세당국은 조세와 관련하여 기업에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을 사전에 적발하여 산업 전반의 회계투명성 확보에도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통계청, 2019. 대외중국무역 의존도
- Chamberlain, N.W. 1973. The limits of corporate responsibility. *Basic books*.
- Chen, C.F. and Tsai, D. 2007. How destination image and evaluative factors affect behavioral intentions? *Tourism management*, 28(4), 1115-1122.
- Chen, S., Chen, X., Cheng, Q. and Shevlin, T. 2010.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1), 41-61.
- Deegan, C., Rankin, M. and Tobin, J. 2002. An examination of the corpo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disclosures of BHP from 1983-1997: A test of legitimacy theory.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15(3), 312-343.
- Desai, M.A. and Dharmapala, D.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145-179.
- Edum-Fotwe, F., Price, A. and Thorpe, A. 1996. A review of financial ratio tools for predicting contractor insolvency. *Construction Management & Economics*, 14(3), 189-198.
- Frank, M.M., Lynch, L.J. and Rego, S.O. 2009.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4(2), 467-496.
- Frederick, W.C. 198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Reagan era and beyond.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5(3), 145-157.
- Friedman, M. 1970. A theoretical framework for monetary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2), 193-238.
- Garde-Sanchez, R., López-Pérez, M. and López-Hernández, A. 2018. Current Trends in Research on Social Responsibility in State-Owned Enterpris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from 2000 to 2017. *Sustainability*, 10(7), 2403.
- Godfrey, P.C., Merrill, C.B. and Hansen, J.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hareholder value. *An empirical test of the risk management hypothes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0(4), pp.425-445.
- Goranova, M. and Ryan, L.V. 2014. Shareholder activism: A multidisciplinary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40(5), 1230-1268.
- Graham, J.R., Hanlon, M., Shevlin, T. and Shroff, N. 2013. Incentives for tax planning and avoidance: Evidence from the field. *The Accounting Review*, 89(3), 991-1023.
- Gulzar, M.A., Cherian, J., Sial, M., Badulescu, A., Thu, P., Badulescu, D. and Khuong, N. 2018. Do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fluence Corporate Tax Avoidance of Chinese Listed Companies? *Sustainability*, 10(12), p.4549.
- Landry, S., Deslandes, M. and Fortin, A. 2013. Tax aggressiveness, corporate social

- responsibility,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Accounting, Ethics & Public Policy*, 14(3), 611-645.
- Lanis, R. and Richardson, G. 201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ggressivenes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1(1), 86-108.
- Lin, F., Liang, D. and Chen, E. 2011. Financial ratio selection for business crisis prediction.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8(12), 15094-15102.
- Hanlon, M. and Heitzman, S.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2-3), 127-178.
- Hoi, C.K., Wu, Q. and Zhang, H. 2013.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Evidence from irresponsible CSR activities. *The Accounting Review*, 88(6), 2025-2059.
- Huseynov, F. and Klamm, B.K. 2012. Tax avoidance, tax manage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8(4), 804-827.
- Irianto, B. S., Sudibyoy, Y. A. and Wafirli, A. 2017. The Influence of Profitability, Leverage, Firm Size and Capital Intensity Towards Tax Avoid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and Taxation* 5(2), 33-41.
- Khurana, I.K. and Moser, W.J. 2009. Shareholder investment horizons and tax aggressiveness. *Available at SSRN* 1517913.
- Ki, E.S. 2012.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tax avoidance and the market response to the tax avoidance.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29(2), 107- 136.
- Kim, J. and Im, C. 2017.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focus on tax avoidance and financial ratio analysis. *Sustainability*, 9(10), p.1710.
- Kolay, M., Schallheim, J. and Wells, K. 2011. Do non-debt tax shields matter for debt policy? *University of Utah working paper*.
- Matten, D. and Moon, J. 200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54(4), 323-337.
- Minor, D. and Morgan, J. 2011. CSR as reputation insurance: Premium nonnuclear.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3(3), 40-59.
- Orlitzky, M., Siegel, D.S. and Waldman, D.A. 2011.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usiness & society*, 50(1), 6-27.
- Watson, L. 2011. Social influences on aggressive accounting: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ax aggressiveness. *Available at SSRN* 1904004.
- Watts, R.L. and Zimmerman, J.L.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 Wilson, R.J. 2009. An examination of corporate tax shelter participants. *The Accounting Review*, 84(3), 969-999.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Tax Avoidance

- Focus on Financial Ratio in Korea & China market -

Park Jun ryo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levance between financial ratios and tax avoidance, especially for entities that perfor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CSR). It also identified the impact of the entity's financial ratios on tax hedg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dentified a decrease in tax hedges for entities that are more active in CSR. This resulted in the same results for both Korean and Chinese companies. Second, in relation to financial ratios, entities with higher profitability, higher cash flows and higher sales growth rate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ax hedg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shown that the degree of performance of an entity's CSR and certain financial ratios are influencing its tax avoidance propensity. Through this, the tax authorities are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redicting tax-avoiding companie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companies subject to tax investigation.

Key word: ESG, Financial ratio, RKS, CSR

*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jrpark@hsc.ac.kr